

은 대부분 20年生未滿의 어린나이이므로 精誠드려 가꾸는 손길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면서

○全國土의 65%인 山林을 쓸모있게 가꾸고 保全하는 일은 政府나 山主만의 努力으

로는 限界가 있으므로 尙창하고 靑적한 山林造成을 爲하여 各界各層의 凡國民的인 參與를 當付한다고 밝혔다.

姉妹結緣 企業體 및 協業體聯合會 名單은 別표와 같다.

林地 담보능력 70%로 상향조정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개발자금융자조건을 개정, 그동안 임지를 담보로 할 경우 시가감정액의 50%만 인정하던 담보능력을 70%로 상향 조정, 92. 11. 1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가감정액의 90%까지 인정하면서도 산지를 담보로 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같은 부동산이면서도 50%까지밖에 인정치 않으므로써 산주들이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융자대출시에 지장이 많았으며 산림기관에서 산림재산 가치기능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으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 건의에 따라 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오동나무 조림 신청을 받습니다

오동나무는 우리나라 향토수종으로서 생장이 빠르고 목재는 습기가 차지 않으며, 휘거나 비틀어지지 않는등 이상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70년대부터 많은 조림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실생묘나 분근묘에 의한 오동나무조림은 묘목을 굴취할때 뿌리가 절단되고 또한 대절작업으로 인하여 부패병 발생, 생육부진등 정상적인 생육이 저하하여 조림사업 또한 부진하였습니다.

'91년도부터 독립가 김병연씨가 새로이 개발한 오동나무 묘목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니 희망산주들께서는 미리 시·군 산림과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묘목생산자(특허자) : 독립가 김병연

○오동나무 조림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

- 묘목 : 정부에서 현물로 무상지원

○조림신청

- 장소 : 시·군 산림과(녹지과)

- 시기 : 년중 신청가능

'92 육림주간을 맞이하여

전국기관·단체별로 육림작업실시

○山林廳에서는 나무가꾸기에 가장 알맞는 時期인 11月 1日부터 11月 7日까지 一週日間을 育林週間으로 設定하여 現場爲主의 育林作業과 汎國民 育林運動을 展開키로 하고,

○今年度 育林週間에는 심은 나무에 對한 着實한 育林管理로 山地의 資源化와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을 促進하기 爲하여 全國의으로 家庭, 마을, 職場, 學校單位로 總 31,341 主體에서 1,791千名이 參與하여 봄에 심은 나무 27千ha에 肥料주기, 雜木畝아 내기, 造林木의 越冬保護等 育林作業을 實施하였다.

○또한 國內外的으로 環境의 重要性이 날로 浮刻되고 있는 狀況에서 山林을 木材資源과 環境資源으로 育成해 나가기 爲해서는 造林과 連繫한 體系的인 育林管理로 鬱蒼한 山林을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山林廳에서는 全國土의 65%나 되는 山林을 가꾸는데에는 山主들이나 政府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온國民의 呼應없이는 이룩할 수 없으므로 育林週間을 맞아 山地의 資源化와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을 爲하여 山에 심은 나무는 勿論 집안팎등 生活周邊의 모든 나무를 對象으로 잘자랄수 있도록 가꾸는 育林運動에 온國民이 主人意識을 갖고 스스로 參與해 줄 것을 當付하였다.

○또한 山林이 한번 荒廢되면 復舊하는데에는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그동안 精誠드려 심고 가꾸어 온 所重한 우리의 山林資源이 些少한 不注意나 失手로 因한 산불被害를 입는 일이 없도록 今年 가을에도 산불조심에 格外히 힘써 주기를 아울러 當付하였다.

소나무 우수품종 육성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소나무를 보다 造林的 價値를 높이고, 改良하기 爲하여 秀型木을 選擇하고 이를 接木增殖하여 採種園을 造成, 改良種子 生産 普及과 아울러, 次代檢定林을 造成하여 選

援된 秀型木의 遺傳形質檢定과 質的으로 優秀한 소나무로 2段階 改良키로 했다.

○山林廳 林木育種研究所에서는 優秀木(秀型木) 선발을 위해 全國의 소나무 優良林에서 생장이 좋고 樹冠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樹幹이 완만하고 비틀어지지 않은 외형적으로 樹型과 形質이 우수한 秀型木을 1959년 부터 1985년까지 425本 선발했고,

- 秀型木이 病蟲害, 山火, 伐採 등으로 손실되는 것에 대비하여 永久保存함과 아울러 새로운 品種 창출을 위한 育種資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秀型木에서 接穗를 채취, 接木苗를 만들어 忠南 태안에 422클론 (11ha)을 造成 완료하고,

- 이를 영구적으로 개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江原 명주와 忠南 태안에 1968년부터 1983년까지 109ha의 채종원을 造成하여 종자생산한 결과, 一般種子에 비해 樹高生長이 10-30%가 증가되어 219kg(造林可能面積: 1,800ha造林分)을 생산보급했다.

○아울러 山林廳 林木育種研究所에서는

2 단계 개량을 위해 育種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 風媒次代 檢定林 23ha (240家系)를 造成, 우수 秀型木으로 江原 3號等 36本을 선발했고,

- 次代檢定 결과에 따라 1世代 採種園에서 不良클론을 제거하여 개량효과 성장량이 30-40% 증대됐으며,

- 春陽木의 樹高生長은 일반 소나무보다 약 30% 우수 (9개지역 평균)했고, 春陽木中에서 優秀한 개체를 선발하면 樹高生長이 50%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연구소에서는 秀型木間 人工交配 次代檢定으로 優秀組合을 선발 第 2世代 채종원을 조성하고, 春陽木의 우수성과 適地 究明을 할 計劃이다.

올해 밤 수출 호조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밤수출은 지난해 수출액 99백만\$보다 많은 사상최대인 1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올해 밤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촉진자금을 당초계획인 96억원보다 44억을 증액한 140억원을 수출업체에 적기 지원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간밤 수출검사를 면제하였고 금년 9월 15일부터는 생밤, 밤통조림의 수출검사를 면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에 최초로 1억 \$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에 생산된 밤은 생산량의 50%내외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 수출량 3만4천톤보다 약간 늘어난 3만 5천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가격은 간밤기준 평균 6.05\$/kg으로서 지난해 5.95\$/kg 보다 0.1\$/kg 높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

○앞으로 품질향상 및 제품의 다양화 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증대시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